

‘농업인의 날’ 하루 앞두고 타결... 농민은 울고 싶다

전농 광주 서구청·영광군청 앞 농업 포기 규탄 야적시위 농업인 10년새 절반 ‘뚝’...경지면적 줄고 농가 부채 늘어

“농업인의 날에 누군들 좋아서 야적시위하겠습니까? 언제나 휴대전화, 양보해 야하고, 손해보는 쪽은 농민들인데, 농업인의 날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11일은 지난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인의 날’이다.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지만, 쌀 시장 개방과 잇단 FTA 타결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는 농업 현실에 농민들은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농업인의 날을 하루 앞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전남도농민회는 광주 서구청과 영광군청 앞에서 올 한해 수확한 벼를 쌓아두고 ‘쌀 시장 개방 반대’, ‘쌀값 21만원 보장’, ‘한·중 FTA 반대’ 등을 외치며 야적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한·중 FTA 타결 소식이 전해졌

고, 농업인들은 다시 시름에 잠겼다.

정일성(51)씨는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갈수록 농사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만 든다”며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이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낮춰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여기에 한·중 FTA로 쌀작물까지 타격을 입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날 농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한·중 FTA, 쌀 전면개방 등 농업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며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동은 농민으로 살지말라”는 해고 통보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의 쇠락은 농도인 전남도의 각종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993년 광주와 전남의 농가인구는 각각 5만422명, 82만4431명으로, 전국(540만7024명)의 16.18%를 차지했지만, 10년이 지난 2013년 각각 3만 2231명, 37만954명으로, 전국(284만7435

명)의 14.1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업인의 수가 급감한 것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업인의 수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난해 전남도 농업인 37만095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6만2204명으로, 43.73%의 비중을 보였다. 농사 짓는 노인들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지면적도 1993년 33만2500ha에서 지난해 30만8220ha로, 광주 역시 1만7046ha에서 1만6282ha로 감소했다.

농업인 수도, 경지면적으로 줄었지만, 농가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 2008년 1889만1000원에 불과한 전남지역 농가 1호당 부채는 지난해 2657만1000원이었다.

한편 광주시는 1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광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오는 16일 오전 상무 시민공원에서 농업인과 시민 1300여명이 참가하는 ‘제1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열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한·중FTA 중단 쌀 전면 개방저지’를 촉구하며 나라를 야적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산물·공산품 고급화로 中 부유층 공략

전남도 대책

전남도는 한·중 FTA 타결에 따라 한층 넓어진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의 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다. 공산품은 물론 농수산물의 고급화를 통해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남의 대중국 수출액은 110억9200만 달러, 2013년 118억5100만 달러, 올 8월까지 66억9900만 달러 등으로 중국은 전체 전남도 수출액의 4분의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수산물 전략품목 해외 판촉 지원...석유·철강 등 경쟁력 강화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화학, 철강, 정밀화학, 농수산물 등으로, 이 가운데 공산품이 99.6%, 석유·화학 관련 제품이 8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등에서 중국 내부 자급율이 급증하면서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통해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세적인 수출 마케팅에 나선 방침이다.

전남도는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 3농 정책을 실시하면서 장기저리 농업정책자금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전복·해삼 등 중국 수출이 늘고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하면서 피해보전 직접 지원금 지급, 폐업 지원 등과 함께 전복, 감, 미역, 다시마, 돛, 해삼, 홍합, 납치, 능성어, 관상어 등을 10대 전략품목으로 지정,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고추·마늘·양파 등 548개 품목 양허 제외

전남도는 한·중 FTA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정부부처에 FTA 대응 정책과제를, 지난 2012년에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물 제외를 건의했다. 또 지난해에는 전남도내 생산 188개 특화품목의 양허 제외와 28개 지역특화품목의 초민감품목 포함을 각각 요청했다.

이들 초민감 품목은 전남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협상 전략으로 이를 비교

개해했다.

수산물 중에서도 조기 등 87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 새로운 차세대 수산업 육성, 수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수립 등도 제시하는 등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보리,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사과, 배, 포도, 키위, 호박,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 548개 품목이 양허 제외 대상에 포

함돼 해당 품목의 피해는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남의 초민감품목, 즉 한·중 FTA 타결의 최대 피해 품목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허 제외 수산물인 조기(냉동), 홍어(냉동), 돌(냉동), 멸치(건조), 쫄면(냉동), 농어(활어), 민어(활어 및 냉동), 꽃게(활어 및 냉장), 고등어(냉장), 소라 등도 마찬가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중 FTA 협상 일정

2004.9	이세안+3 경제장관 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 통해 민간공동연구 합의
2005	중국 국무원별 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연구부 공동연구 공동연구 수행
2006.11	민간공동연구 종료
2006.11.17	한중 통상장관 2007년부터 FTA 신관학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7.3.22~23	한중 FTA 신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베이징)
2007.7.3~4	한중 FTA 신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2007.10.23~25	한중 FTA 신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베이징)
2008.2.18~20	한중 FTA 신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서울)
2008.6.11~13	한중 FTA 신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베이징)
2010.2	한중 FTA 신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합의(베이징)
2010.5.28	신관학 공동연구 종료 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9.28~29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베이징)
2011.4.11	한중 통상장관 회담(베이징)
2012.2.24	한중 FTA 공청회
2012.3.1~2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서울)
2012.3.22~23	한중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베이징)
2012.5.14	한중 FTA 제1차 협상(베이징), 협상세칙 확정
2012.7.3~5	한중 FTA 제2차 협상(서울)
2012.8.22~24	한중 FTA 제3차 협상(베이징)
2012.10.20~11.1	한중 FTA 제4차 협상(경주)
2013.4.26~28	한중 FTA 제5차 협상(하얼빈), 양국 새 정부 출범 후 첫 협상
2013.7.2~4	한중 FTA 제6차 협상(서울)
2013.9.3~5	한중 FTA 제7차 협상(하얼빈), 1단계 협상 마무리
2013.11.18~22	한중 FTA 제8차 협상(인천)
2014.1.6~10	한중 FTA 제9차 협상(서울), 우리 측 양허 개요 제시
2014.3.17~21	한중 FTA 제10차 협상(고양)
2014.5.26~30	한중 FTA 제11차 협상(서울), 양측 2차 양허안 교환
2014.7.3	한중 정상회담,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합의
2014.7.14~18	한중 FTA 제12차 협상(대구),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 원칙적 합의
2014.9.22~26	한중 FTA 제13차 협상(베이징), 규범 분야 양허 4개 항목 타결
2014.11.6~10	한중 FTA 제14차 협상(베이징)
2014.11.10	양국 정상, 한중FTA 실질적 타결 선언(베이징)

朴·習 고비마다 소통으로 돌파구

9년간 각별한 친분 타결에 도움...정상회담 2시간전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던 데는 두 정상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돈독한 친분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5년 첫 만남을 가진 이후 9년간 남다른 인연을 유지하며 서로를 ‘라오펑어우(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두 정상은 양국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정상 차원의 소통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선언’에 “한중 FTA 협상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 결과 당시 1단계 협상에서 맴돌던 FTA는 이러한 문구가 공동선언에 적시된 지 3개월 만인 같은해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수 90%, 수입액 85% 개방’ 등을 골자로 한 모델리테(협상기본 지침)에 합의,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2단계로 넘어간 양국 협상이 지지부

진했을 때도 두 정상은 협상 진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지난 7월 초 시 주석의 국빈 방한 때였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결과 공동선언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데 합의했다.

그 결과 회담 직후 대구에서 열린 12차 협상(7월14~18일)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두 정상이 이날 30개월간 끌어온 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도 한중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양국은 지난 6일부터 14차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빅딜’을 시도했지만, 공산품·농수산물의 개방 범위와 수위, 원산지 규정 등 마지막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양국 협상팀은 이날 오전 잔여 쟁점에 대해 1시간 가량의 최종 협상을 진행, 정상회담을 1시간45분 앞두고 합의를 끌어냈고 결국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장류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1. 교육목표

- 전통장류 및 전통 식문화 계승
- 기술+경영+문화 결합 추구를 통한 6차 산업화

2. 교육대상

- 전통장류제조 종사자 및 제조 유통업자 등

3. 교육접수 안내

- 전화 접수 후 교육비 계좌 입금
- 접수 기간 : 2014년 11월 11일 ~ 16일(선착순 25명)
- 접수 및 문의처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 063)653-9593

4. 교육안내

- 교육장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27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교육비 : 금 10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301-0149-6543-31 (예금주 :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5. 교육내용 및 시간

날짜	시간	과정명	교육내용
11.17 (월)	11:00 - 12:00	오리엔테이션	교육일정 및 진행방법 소개
	13:00 - 16:00	6차산업 개관	6차산업의 이해
	16:00 - 19:00	전통장류 개관	전통 장류산업의 이해/ 재료선별
11.18 (화)	09:00 - 12:00	발효미생물학	장류관련 발효미생물
	13:00 - 16:30	저장처리 및 용기	식품의 저장법 및 장류 제조 시 응용
11.19 (수)	16:00 - 19:00	전통장류 제조실습1	전통매주 제조 실습
	09:00 - 12:00	장류제조 위생관리	HACCP 일반론
11.20 (목)	13:00 - 16:00	6차산업 마케팅	유통채널별 마케팅 기법
	16:00 - 19:00	전통장류 제조실습2	전통청국장/고추장 제조 실습
	09:00 - 12:00	전통장류 제조실습3	전통된장/간장 제조 실습
11.21 (금)	13:00 - 16:00	제품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품관리 프로그램 개발 기초 및 운영
	16:00 - 19:00	개발/운영	제품관리 프로그램 개발 기초 및 운영
11.21 (금)	09:00 -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